

나는 훨씬 더 큰 기쁨을 느낀다네. 그럴 때면 돌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솟아나 수 세기를 가로질러 들려오고, 그 목소리가 인적 없는 황야 한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말을 걸어와 혼자가 아니라고, 바로 이 장소에 있던 다른 인간들도 그와 같이 느꼈고 생각했으며 아파했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. 또 만약 그 글귀가 이제는 명맥이 끊겨버린 어느 고대 국가로부터 전해져온 것이라면,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겁의 벌판으로 펼쳐놓고, 한 제국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의 사유만큼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듯하네.

그래서 나는 폴과 비르지니가 기를 올리던 작은 깃대에 호라티우스의 이런 시구를 써넣었다네.

이따금 폴이 그 그늘 아래 앉아 저 멀리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던 타타마카나무의 껍질에다가는 베르길리우스의 이런 시구를 새겨 넣기도 했네.

그리고 이 다른 하나의 글귀는 두 가족의 모임 장소였던 라 투르 부인의 오두막집 문 위에 새겨두었네.

그런데 비르지니는 내 라틴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더니, 내가 자신의 풍향계 발에 새겨둔 글귀가 너무 길고 너무 어렵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네.